

첫방 역대 시청률 기록한 '효리네2'



'효리네 민박'이 JTBC 역대 첫방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신의 클라스를 입증했다. 하지만 아직 더 기대할 게 남아있다는 사실. 바로 배우 박보검의 등장이다. 지난 4일 첫 방송된 JTBC 예능

특유의 힐링 매력 뽐내며 폭발적 반응 이끌어 8.016% 시청률 기록...박보검 합류 귀추 주목

'효리네 민박'에서는 가수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제주도 집에서 소녀시대 윤아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맞이해 민박을 시작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은 겨울을 맞이한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집 공개로 시작됐다. 집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지붕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여름과는 또 다른, 겨울만의 매력이 가득한 제주도 집에서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이전과 같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 부러움을 자아냈다.

"방송을 오랜만에 해서 어색하다"고 운을 뗀 이효리는 "이번에는 되게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싶은 마음에 시즌2를 결정했다"면서 채식 위주가 아닌, 고기 위주의 식단을 예고했다. 또한 몽골식 가옥 게르와 겨울 노천탕 등 시즌에서 보지 못한 겨울 아이템들을 대거 소개해 시선을 모았다.

이어 시즌2의 아르바이트생인 윤아가 등장했다. 이효리는 "아는 사람이 와서 다행이다"라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SBS 예능 '베를린에 갔다'를 통해 만난 적이 있기 때문 반갑게

인사한 이들은 민박 손님에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다음날 아침 첫 번째 손님인 등장에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효리네 민박'은 모두가 기대되었던 특유의 힐링 매력을 마음껏 뽐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를 입증하듯 이날 첫 방송은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가구 전국기준 8.016%의 시청률을 나타내며 JTBC 역대 최고 첫방 시청률을 기록한 상황.

무엇보다 새롭게 합류한 아르바이트생 윤아와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케미스트리가 시즌 1 때의 아이유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는 평이다. 여름과는 확연히 다른, 겨울 아이템만의 장점도 '효리네 민박'이 이 같은 인기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로 보인다.

더욱이 시즌2는 이제 막 시작한 상태라 아직 박보검의 순서가 남아 있는 상황. 이효리 이상순 부부와 윤아의 만남만으로도 이같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효리네 민박'이 새롭게 맞이하는 민박 손님들과 어떤 추억을 쌓아갈지, 그리고 박보검의 합류로 어디까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영 '나쁜녀석들2', 시즌1과 달랐다

'나쁜녀석들'이 정의를 메시지를 남긴 채 종영했다. 특히 사이다 액션이 가득할 거라 예상했던 방송 전과는 달리, 시즌1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목격한 울림을 선사해 의미를 더했다.

지난 4일 방송된 OCN 토일드라마 '나쁜녀석들: 악의 도시' (극본 한정훈/ 연출 한동화 황준혁, 이하 나쁜녀석들2) 마지막회에서는 장성철(양익준 분)의 희생으로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우재문(박준훈 분), 허일후(주진모 분), 한강주(지수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장성철은 배상도(송영창 분)의 대화를 녹취한 메모리카드를 삼킨 채 그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다. 동료의 시신을 포대시 마주하게 된 우재문은 오열했고 허일후, 한강주와 힘을 합쳐 메모리카드를 회득, 배상도와 조영국(김홍과 분)을 응징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방송 말미, 우재문이 시즌 1에서 활약했던 정태수(조동혁 분)를 찾아가 "함께하자"고 말해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든 상황. 악(惡)은 끊임없이 존재하기에, 이미 정의를 실현했음에도 새로운 정의를 위해 움직이려는 '나쁜녀석들'을 통해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겼다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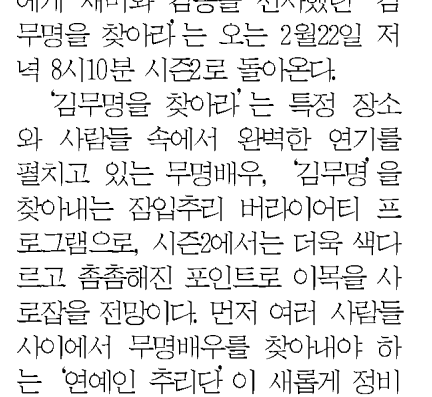
사실 '나쁜녀석들'은 시즌1의 스펀 오프 작품인 만큼, 통쾌한 사이다 액션과 주인공들의 행보가 예상했던 드라마다. 더욱이 24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박준훈을 필두로 주진모, 양익준, 김무열, 지수가 만들어가는 커리시마 가득한 브로맨스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막상 베일을 벗은 '나쁜녀석들'은 시즌1과는 다른 전개로 반전을 안겼다. 사이디는커녕 고구마 전개의 연속이었고 시즌2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줄 알았던 노진경(김무열 분)은 드라마 중간 살해당해 충격을 안겼다. 장성철(양익준 분) 또한 결국 살해당했고 말이다.

그러나 그동안 '나쁜녀석들'이 얼마나 힘들게 정의를 수호해왔는지 알고 있기에 방송 말미 신사한 엔딩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왔다. 평.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린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마지막회는 평균 4.8%, 최고 5.7%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김무명을 찾아라2' 오는 22일 첫방송



tvN '김무명을 찾아라'가 시즌2로 돌아온다. 지난해 추석 특집 방송 후 뜨거운 호응으로 정규 편성되며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던 '김무명을 찾아라'는 오는 2월22일 저녁 8시10분 시점으로 돌아온다.

'김무명을 찾아라'는 특정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무명배우, '김무명'을 찾아내는 잠입추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시즌에서는 더욱 색다르고 촘촘해진 포인트로 이목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먼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무명배우를 찾아내야 하는 '연예인 추리단'이 새롭게 정비

된다. 지난 시즌 함께한 정형돈과 이상민을 비롯해 효연과 김동현이 합류, 신선하고 불꽃튀는 추리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추리의 스케일이 커진다. 지난 시즌이 이쿠아리움, 컬링 경기장 등 특정 장소에 국한됐다면, 이번에는 제주도의 드넓은 목장이나 인천 시해바다 위 등 엄청난 규모 속에서 '김무명'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단서와 복선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 추리하는 과정 자체와 맞춰가는 희열 반전의 재미 등이 더해지며 더욱 강력한 '추리 예능'을 예고한다.

구성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생긴다. 무명배우를 숨겨주는 역할을 했던 '추리 설계자'가 없어지고 대신 무명배우들의 연기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 '김무명'은 특정 직업의 행동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캐릭터의 '삶'을 연기하며 더욱 깊이 있는 연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을 맡은 박준훈 PD는 "김무명을 찾아라2"로 시청자를 다시 찾아 뵙게 돼 기쁘다. 이번 시즌에는 더욱 새롭고 대대적인 변화를 많이 주고자 노력했다. 시청자분들도 방송을 통해 함께 '김무명'을 가려내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란다. 더욱 즐거운 추리무대를 기대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화유기' 아사녀 빙의 이세영, 이승기 홀렸다



아사녀에 빙의된 이세영이 이승기를 홀렸다. 이승기의 눈동자는 붉게 물들었다.

4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에서는 천년 묵은 원귀 아사녀로 다시 태어나는 정세라(이세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과거 뺨소니로 정세라를 죽였던 강대성(송중호 분)은 정세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더 죽이려고 했다. 강대성은 정세라를 컨테이너에 가렸고 그 안에는 석관이 있었다.

정세라가 석관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자 석관에서 빛이 나왔고 석관에 있던 아사녀가 됐다.

수보리조사(성지루 분)는 우마왕(차승원 분)과 손오공(이승기 분)에게 석관에 들어 있던 것이 천년 묵은 악귀 아사녀였다는 사실을 전했다.

수보리조사는 "지금 엄청난 게 깨어난 것 같다. 아사녀는 천년묵은 악귀다. 쉽게 볼 상대가 아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면 구분도 되지 않는다. 요물을 깨워 왕을 만들 수 있는 신녀다. 까딱 잘못하면 세상이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손오공이 우마왕을 찾자 우마왕은 "그게 왜 내 탓이야. 삼장이 가서 한 건데"라며 진선미(오연서 분)를 탓했고 이에 손오공은 "그게 왜 삼장 탓이야"며 욕심잡았다.

수보리조사는 "마왕이 시작한 일이 마왕이 아사녀를 찾으라"고 정리했고 우마왕은 "죽다 살아난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며 온몸으로 피범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수보리조사는 "그러면 제 천대성이 찾아봐"라고 했지만 이번엔 손오공이 "심중에 수시로 마비가 온다"며 피범 배틀을 벌였다.

아사녀는 진선미에게 장미꽃을 보내 일부를 삼켜 버렸다. 아사녀는 또 우마왕에게도 접근해 그의 약점을 건드렸다. 손오공은 그녀의

의미를 암시하는 듯한 시계 모양으로 변화를 시도해 곡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이로써 로이킴은 2017년 5월 첫 미니앨범 '개화기' 이후 9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신곡 '그때 헤어지면 돼'는 학업을 위해 미국에서 생활 중인 로이킴이 팬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 같은 노래로, 겨울의 끝자락에

서 로이킴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발라드가 될 것이다. 특히, 로이킴은 그간 다양한 음악 작업을 통해 싱어송라이터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준 만큼 그의 신곡 '그때 헤어지면 돼'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로이킴은 12일 싱글 앨범 '그때 헤어지면 돼'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공개한다.

특히, 로이킴은 그간 다양한 음악 작업을 통해 싱어송라이터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준 만큼 그의 신곡 '그때 헤어지면 돼'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로이킴은 12일 싱글 앨범 '그때 헤어지면 돼'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공개한다.

로이킴, 12일 '그때 헤어지면 돼' 발표

가수 로이킴이 12일 신곡 '그때 헤어지면 돼'를 전격 발표한다.

로이킴은 5일 오전, 공식 SNS를 통해 싱글 '그때 헤어지면 돼'의 컴백 포스터를 깜짝 공개하며, 신곡 발표 소식을 전했다.

공개된 이미지는 신곡 제목인 '그때 헤어지면 돼'와 발매일시각 한 눈에 쏙 들어온다.

또, 한적한 곳에서 먼 곳을 응시하는 로이킴의 뒷모습에서 쓸쓸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특히, 로이킴의 'ROY' 엠블럼이 이번 신곡 '그때 헤어지면 돼'에서 '그때'의

의미를 암시하는 듯한 시계 모양으로 변화를 시도해 곡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이로써 로이킴은 2017년 5월 첫 미니앨범 '개화기' 이후 9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신곡 '그때 헤어지면 돼'는 학업을 위해 미국에서 생활 중인 로이킴이 팬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 같은 노래로, 겨울의 끝자락에

서 로이킴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발라드가 될 것이다. 특히, 로이킴은 그간 다양한 음악 작업을 통해 싱어송라이터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준 만큼 그의 신곡 '그때 헤어지면 돼'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로이킴은 12일 싱글 앨범 '그때 헤어지면 돼'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공개한다.

특히, 로이킴은 그간 다양한 음악 작업을 통해 싱어송라이터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준 만큼 그의 신곡 '그때 헤어지면 돼'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로이킴은 12일 싱글 앨범 '그때 헤어지면 돼'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공개한다.

특히, 로이킴은 그간 다양한 음악 작업을 통해 싱어송라이터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준 만큼 그의 신곡 '그때 헤어지면 돼'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로이킴은 12일 싱글 앨범 '그때 헤어지면 돼'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공개한다.

특히, 로이킴은 그간 다양한 음악 작업을 통해 싱어송라이터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준 만큼 그의 신곡 '그때 헤어지면 돼'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로이킴은 12일 싱글 앨범 '그때 헤어지면 돼'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공개한다.

특히, 로이킴은 그간 다양한 음악 작업을 통해 싱어송라이터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준 만큼 그의 신곡 '그때 헤어지면 돼'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로이킴은 12일 싱글 앨범 '그때 헤어지면 돼'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공개한다.

특히, 로이킴은 그간 다양한 음악 작업을 통해 싱어송라이터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준 만큼 그의 신곡 '그때 헤어지면 돼'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로이킴은 12일 싱글 앨범 '그때 헤어지면 돼'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공개한다.

오늘의 운세 2018년 2월 6일 화요일 (음력 12월 21일)



▶**쥐띠**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될 것. 자기 발전은 곧 지혜로써 승부가 가려진다. 비위가 상해도 겸손한 태도로 그 순간을 넘긴다면 좋은 일이 있겠다. 자식에 애착은 있으나 걱정이 멈춰지지 않는다. 더 이상 투자는 안 됨.



▶**사슴띠** 매사에 조심하라. "아니요"보다 "예"라고 대답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 당신이 항부로 처신하면 망신 수가 뻥뻥치 매사에 신중을 기할 것. 그, 오, 자, 천 성씨는 친구와 대화를 많이 갖는 것이 좋겠다.



▶**양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듯 이곳저곳 뿌리기만 했지 소득이 없다. 오, 비, 사, 흥 성씨는 집념을 갖고 위기를 넘기라. 방심은 금물이다. 2, 5, 7월생은 단순함을 억제함이 좋을 듯. 인과관계 소홀히 하지 말라. 급한 불 꺼주는 일 생긴다.



▶**토끼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앞으로 더 많다. 사업적으로 어둠이 걷히고 밝은 햇살이 빛나는 날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운전자는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날.



▶**용띠** 내태한 자에게는 결코 결실이 있을 수 없다. 타인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자기 소신대로 전진함이 좋겠다. 무심결에 흘린 한 마디가 구설에 오를 수. 언행에 조심성이 필요할 때.



▶**뱀띠** 남에게 베푸는 양랑을 가지라. 노력은 성공의 지름길임을 아는 자만이 뜻한 길에 도달할 것이다. 대인관계에 신경 쓸 것. 그, 사, 오 성씨는 서두르면 손해를 본다. 4, 7, 10월생 변동하라.



▶**말띠** 매사에 힘에 겨워 부담스럽지만 그, 비, 흥 성씨에게 도움을 청하면 매듭이 풀리겠다. 겉으로는 인자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책임감 등으로 마음이 무겁다. 애정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듯. 10, 11, 12월생 노란색이 길하다.



▶**양띠** 저축하지 않은 미래는 불안할 것이다. 어깨를 펴고, 용기를 갖고 지혜로써 대처하라. 당신은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뿌린 만큼 결실을 보는 운이다.



▶**원숭이띠** 오늘은 당신의 성격을 냉정히 판단하고 관조해야 할 날이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쥐, 용, 개띠의 조언이 좋을 듯. 일에 열중하면 오후에는 원가 이뤄질 수. 사람을 택하는 데 욕심을 내면 불운이 된다.



▶**닭띠** 대인관계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신경을 더욱더 써야 할 때다. 여자는 활달한 날개를 펼치게 될 듯. 어른들 말씀을 귀담아듣고 실천할 것이 있으면 곧 행하라. 그러면 당신의 지위가 한층 높아진다.



▶**개띠** 환경을 타협하지 말라. 자신도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부모 된 마음을 알 수 있으리라.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는 법. 비, 오, 사, 흥 성씨는 직장에서 리듬 착오 있을 듯. 범, 용, 뱀띠의 비위를 맞추라.



▶**돼지띠** 지금은 용기가 필요할 때. 동료에게 당신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 비, 흥 성씨는 파란색이 행운을 줄 듯. 빈부 차이가 다 마음에 있으니 욕심을 버리라. 5, 7, 10, 11월생 동쪽이 길.